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 붕어섬 생태공원

전북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올해 3월부터 46만명 방문, 2022년 10월 출렁다리 개통 이후 누적 132만명 집계

임실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작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4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개장 2년여 만에 132만 여명이 방문, 전국적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군은 올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서 봄을 맞아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를 처음 개최, 2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축제를 즐겼다.

4~5월에는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을을 맞이한 군은 전북자치도의 가을 대표 축제가 된 임실N치즈축제 일정에 맞춰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 국화를 배치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코스모스, 구절초 등을 식재해 가을 경관 조성을 위한 준비에 공을 들였다.

이에 화답하듯 가을꽃들이 가지개를 켜면서 전국 각지에서 불려든 관광객으로 버스 투어가 만원을 이루며 10월 한 달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의 수가 대략 10만여 명에 달했다.



임실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작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겨울을 맞이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겨울꽃인 꽃망배추를 식재하고 대형 트리과 산타 등의 조형물을 설치해 사계절 아름다운 붕어섬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여 간 한파와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휴장에 들어간다.

휴장 기간 철저한 시설 점검과 환경

개선을 진행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임실 방문의 해인 2025년 3월 중 재개장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2025년은 임실 방문의 해로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이라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봄과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서 천만 관광을 실현하는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친환경농업 지원금 22억5000만원 지급

2024년 생산 장려금 12억7000만원 · 직불금 9억8000만원 확정

순창군은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12억7,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불금 9억8,000만원을 확정해 총 2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농공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작물별로 차등 지급된다. 논은 경우 ha당 35만원에서 70만원,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 원, 채소 및 특작 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에서 친환경 인증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직불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인증 단계와 작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ha당 단가는 벼는 160만원에서 190만원, 일반작물은 170만원에서 200만원, 임산물(두릅·밤)은 50만원에서 75만원이다.

이번 친환경농업 장려금과 직불금은 신청서 접수와 현장 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검증, 인증 관리 정보시스

템을 통한 심사를 거쳐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840농가에 지급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생산비가 증가하고 수량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순창군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1,076ha로 전북특별자치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640ha로 전체 인증면적의 60%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기초생활거점 조성 일환... 임실 신평 행복나눔센터 준공

지역주민들의 교육 · 문화

복지 서비스 거점 공간 제공

임실군이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신평 행복나눔센터' 준공식이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신평 행복나눔센터에서 개최됐다.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 · 문화 · 복지 서비스 거점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H/W(하드웨어) 사업과 주민의 역량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S/W(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8원을 포함, 총사업비 40여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신평시장 정비와 신평면 중심지의 사교다발지역을 개선하는 안심삼거리 조성,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울마당 조성과 더불어, 리더교육, 주민워크숍 등의 지역역량강화도 함께 전개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사업들은 그동안



임실군이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신평 행복나눔센터' 준공식이 심 민 군수와 장종민 군의장,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신평 행복나눔센터에서 개최됐다.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불만을 모두 고려해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신평면민 모두가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신평 행복나눔센터는 그동안 턱없이 부족한 공동체 활동에 각종 여가 및 동아리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주요 공공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형만 추진위원장은 “신평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임실군에 감사하다”며 “신평면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들이 신평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이 어지는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와 서울대학교 지역의료혁신센터는 30일, 남원시 발전모델에 적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발굴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방향성 제시

남원시·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추진전략 수립 최종보고

남원시와 서울대학교 지역의료혁신센터는 30일, 남원시 발전모델에 적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발굴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경식 시장, 시의회 김영대 의장 및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실증사업 현장의 주축 이였던 남원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남원시는 지난 8월 20일, 남원미래의 료포럼을 개최해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발표한 47가지 유형의 발제내용을 바탕으로 2가지 사업(△치매 인지기능평가 키오스크 실증사업 △KB 오 켄어 실증사

업)을 선정해 남원시 현장에 적용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진행을 해왔다.

지난 11월 6일 중간보고회에서는 진행 과정 등 문제점을 점검하였고, 12월 30일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과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원시는 최종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남원시가 디지털헬스케어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내년 군 입대 시민에 입영지원금 지급

1월 1일부터... 20만원

남원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남원시민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로 입영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금은 남원시 지역화폐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남원지역 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국바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 이후 현장 민원 청취를 통해 지급 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한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남원시민으로

남원시는 2025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의 60세이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에서 60세이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60세이상 남원시민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절을 따라 발진과 수포를 일으키는 질환이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고 질병 이환 시 극심한 통증과 종대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남원시가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지소 · 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세이상 저소득층(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세이상 시민(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60세이상 저

소득층은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가능하며 생백신은 무료지원,사백신은 70% 지원한다.

저소득층 외 60세이상 시민은 유료로 사백신으로만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비만금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상포진 생백신은 기존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 되어왔던 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상포진 사백신은 총 2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고가이지만 예방효과가 높고 비용 이환 시간이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 면역저하자나 임환자, 기존에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을 했던 사람은 생백신 접종은 불가하며 사백신으로만 접종이 가능하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대상포진 이 이전 출생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세이상 시민(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60세이상 저

남원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상황파악이 우선”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30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요령과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

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회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이 좋지만 집으로 회피 또는 연기가 들어온다면 본인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 드림스타트, 내년부터 슈퍼비전 체계 강화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 내부 슈퍼비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슈퍼비전 실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 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135시간의 양성(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자격검정심'을 통과하면 슈퍼바이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자격을 부여받은 강보현 아동통합사례관리사(사진)는 전북에서 두 번째로, 2012년부터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였으며, 향후 3년간 슈퍼바이저로 동료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사례기법 전수, 면담, 강,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성가정식품 장학금 500만원 기탁

순창성가정식품(대표 김종덕)이 30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순창군육친장학회(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인계면에 소재한 순창성가정식품은 1996년 설립 이후 4대째 이어오며 전통 장류 및 절임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 식품 명가다. 이 기업은 전통 식품의 대중화와 순창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 공로패와 인증 현판도 수여받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김종덕 대표는 순창군 육친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현물 및 현금 기부를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순창의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김종덕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기탁받은 장학금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